

나무 문화의 계승과 창조를 위한 가나자와시 나무 문화도시 추진계획

김종범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들어가며

일본 교토부에서 북동쪽으로 약 230킬로미터 떨어진 노토반도에 위치한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金沢市)는 인구 45만 명에 행정구역의 60%가 산으로 덮인 역사도시이다. 가나자와시는 사라져 가는 역사적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1968년 ‘가나자와시 전통환경 보존조례(金沢市伝統環境保存条例)’를 제정하였다. 이는 일본 내에서 전통적인 도시경관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자주조례로, 상위법에 근거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조례이다. 역사도시의 개발과 보존이라는 숙제를 긴 시간에 걸쳐 풀어 온 가나자와시와 주민들의 노력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단면이다.

가나자와시는 2022년 4월에 ‘가나자와시 나무 문화도시의 계승과 창출의 추진에 관한 조례(金沢市における木の文化都市の継承と創出の推進に関する条例, 이하 나무문화도시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가나자와시 나무 문화도시 추진계획(金沢市木の文化都市推進計画, 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추진계획이 지향하는 모습은 ‘나무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생활과 마을 만들기’에 있고, 이를 위해 필요 한 나무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 나무를 통한 생업의 영위 방법, 일상생활에서 나무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지속 가능한 산림과 임업의 순환구조 만들기 등이 시책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부여군이 발주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수행 중인 ‘부여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수립’ 연구의 일환으로, 2024년 4월에 진행한 가나자와시 도시 계획과·역사도시추진과·문화재보호과의 정책담당자를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2004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과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부여·경주·공주·익산의 고도 정책이 운영된 지 20년이

지났다. 올해는 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해, 그간 각 고도에서 개별적으로 수립하던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으로 바뀌고, 부여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의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 중심으로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체계가 변하였다.

이렇게 변화 중인 국내 역사도시 정책 흐름 속에서 가진 가나자와시 정책담당자와의 면담은 상당히 흥미로웠다. 반세기가량 시 중심으로 지역주민·중앙정부와 소통하며 만들어 온 역사도시 정책은 국가 중심으로 문화유산을 관리해 온 한국의 보편적 상황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었다. 특히 가나자와시 도시 계획과가 주도하는 나무 문화도시 정책은, 대한민국 저변에 깔린 문화유산 규제 인식에 따라 각 시·군·구에 설치된 도시계획과와 문화재과의 상호 견제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그간의 역사도시 관리 방식을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가나자와시 나무 문화도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나무 문화와 나무 문화도시의 정의 및 의의

나무 문화는 나무로 만들어 내는 자연환경, 건축, 공예품 등 ‘나무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거리와 생활에 폭넓게 도입되어 만들어지는 문화이다. 여기에는 목조건축(전통공법, 재래식 공법, 신공법 모두 포함), 목재를 활용한 내·외장, 목공예품, 공공장소에 설치된 시설물 그리고 가로수와 정원, 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나무 문화도시는 이러한 나무가 갖고 있는 환경과 사람과의 친화적 특성을 도시만들기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도시를 뜻한다. 추진계획에서 정의 내린 나무 문화도시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나무 또는 건축재료로서의 나무에 한정하지 않고, 나무의 공급과 활용이 순환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마을만들기와 나무 문화의 접목

가나자와는 고고학적으로 조몬시대* 쥐락 유적으로 알려진 지카모리(チカモリ) 유적에서 밤나무 거목을 쪼개어 만든 기둥열이 일본 내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이후 중세와 근세에도 목조건축이 활발히 지어졌고, 일본의 3대 정원으로 불리는 젠로쿠엔(兼六園)이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나무와 관련된 이러한 역사적 가치는 도시와 문화재를 관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가나자와는 역사뿐만 아니라 2009년 ‘유네스코 창조도시’(공예 부문)로 인정받은 도시로, 지역 고유의 전통공예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목공예는 나무 문화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 전역이 경관계획구역인 가나자와는 역사적 경관을 형성하는 전통건조물군, 전통적 가로경관의 나무 담장, 도시계획상 건축물 높이규제 강화 등 경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 도시이다.

가나자와시는 문화유산, 창조도시, 경관도시라는 세 가지 토대 위에 나무 문화도시의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 세 가지 토대는 현재의 가나자와시 마을 만들기에 이미 정착한 계획과 정책으로, 이곳에 나무 문화를 접목하여 ‘지금까지의 마을만들기에 나무의 문화를 더해 더 많은 매력 창출로!’를 가나자와의 새로운 마을만들기 테마로 설정하였다.

생업에 대한 나무 현황

일본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목재이용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산 목재 보급을 위해서 건축물의 목조화·목질화 활동을 장려하는 ‘WOOD CHANGE’가 대표적인 국가 단위의 정책이다. 이러한 국가 정책 동향에 맞추어 가나자와시는 그간 ‘숲 조성 조례(森づくり条例)’, ‘가나자와의 농업과

* 일본 신석기시대 문화 중 하나이다.

‘숲 조성계획’, ‘숲에서 시작되는 가나자와의 미래 제언’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가나자와시는 나무 관련 산업 종사자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전 산업 종사자의 약 2.2% 수준인 약 5,400명이 나무와 관계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종사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가나자와는 1996년에 장인대학을 개설하여 전통건축 관련 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009년에 개교한 임업대학에서 임업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나무 문화도시가 생활과 생업에서, 나무의 생산과 활용을 함께 도모하는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던 것은 이러한 토대가 사전에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가나자와시 정책담당자는 가나자와시만큼 나무와 관련된 선진적 정책을 펼치는 도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하였다.

나무 문화도시를 구성하는 건축과 공간의 과제

가나자와시는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歴史的風致維持向上計画)’이 수립된 2009년 아래로 역사적 목조건축물의 보존·활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목조건축의 멸실을 막는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6개의 정원을 가꾸기 위한 보존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에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제정, 2021년에 ‘탈탄소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건축물 등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脱炭素社会の実現に資する等のための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이 시행되는 등 목조건축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가나자와시가 속한 이시카와현은 목조건축 시장 확대를 위해 ‘이시카와 나무와

친해지는 마을만들기 학원’을 개설하고 목조화·목질화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설계자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가나자와시에는 목조건축 비율이 주거목적의 건축물은 69.7%, 비주거 목적의 건축물은 12.6%에 이른다. 특히 4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목조를 활용하는 신공법의 도입에 힘입어 나무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나무 문화를 지탱하는 숲의 현황

‘녹색성장’이라는 사회경제적 분위기 속에서 이시카와현은 목재 제품 확대와 공공건축물이나 민간의 비주거용 건축물의 지역 목재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나자와시는 시 면적의 60%가 산림이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임업을 통한 수익창출의 어려움으로 관리되지 않는 산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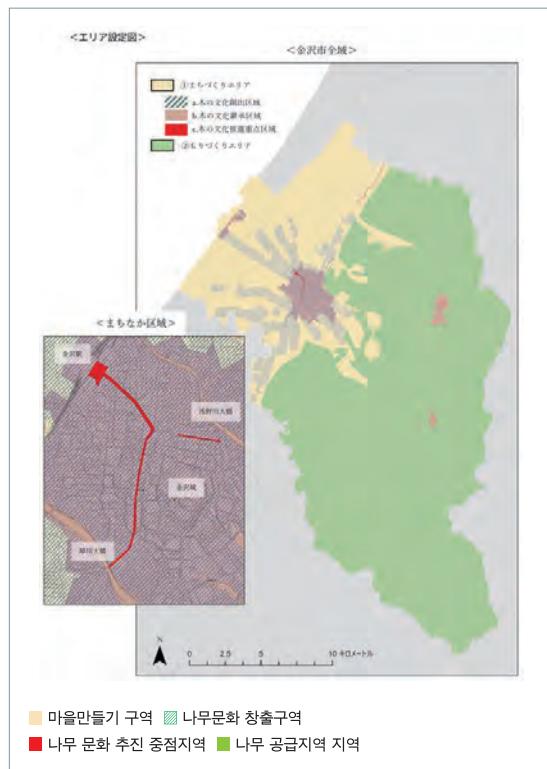
나무의 문화도시를 이루기 위해 가나자와시는 산림의 관리와 보전, 정비의 필요성을 추진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산림 재생을 위한 산림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적절히 벌채된 나무를 활용하여 건강한 산림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계획의 지향점: 계승과 창출

추진계획에 적힌 계획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나무 문화도시의 계승과 창출의 추진은 본 시에서 축적된 나무 문화의 의의를 인식하고 이를 존중함과 동시에 선조들이 쌓아온 나무 문화도시를 계승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모습을 창출하고 발전시켜 후대에 계승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 임업, 원예 서비스업, 목조건축공사업, 건축리모델링공사업, 목공공사업, 목재·목제품 제조업, 가구·장비 제조업, 철기 제조업, 가구·장식품 도매업, 가구·장식품·다다미 소매업, 토목업, 건축서비스업, 농림수산업협동조합

** 1999년에서 2009년 사이 목조건축인 마치야 멸실은 2,600여 채였으나, 2008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1,170채로 감소하였다.



나무 문화도시 구역 설정도
출처: 金沢市(2023, p.67)

여기서 ‘계승’은 가나자와에 남겨진 나무 문화를 중점으로, 실제 공간상에는 기존에 ‘마치야 보전활용 촉진구역’으로 설정되어 역사적 건축물과 거리·정원 등이 보존된 지역을 ‘나무 문화 계승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이 구역에서는 역사적 건축물 보존 및 활용, 장인대학 운영, 문화재 유지·관리 지원, 보존수립 지정 등의 활동이 진행된다.

‘창출’은 계승된 나무 문화를 바탕으로 이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창출구역은 ‘가나자와시 집적도시조성계획(金沢市集約都市形成計画)’의 ‘거주유도구역’ 범위에 중첩시켰다. 이를 통해 중층 또는 대형 건축물에서 목재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건축을 유도하고, 목재문화 촉진을 유도한다.

이 구역에서는 중대형 목조건축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 도심 축에 보행자가 느낄 수 있는 조형물 설치, 나무 문화도시 모델이 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지원, 가나자와산 자재를 사용한 주택 지원, 녹화사업 지원 등이 예정되어 있다.

주요 시책과 정책 사업

가나자와시는 추진계획에서 5개의 시책 방향과 구체적 대응 방안 그리고 32개의 세부 활동 내용을 제시하였다. 각 시책은 시에서 운영 중인 나무 관련 계획과 조례, 제조업 전략계획, 문화유산 관련 계획, 건축 및 토목공사에서의 목재 관련 방침, 환경계획과의 촘촘한 연계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추진계획의 시책 방향과 구체적 대응 방안*

시책 방향	구체적 대응 방안
나무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기	나무 문화에 대한 정보 제공 목재, 숲을 접할 기회 제공
나무를 일로 삼고, 일상생활에 활용하기	나무와 관계 맺고 일하기 나무를 이용한 제품, 공예, 기술 사업 활동에 접목하기 나무를 이용한 제품, 공예, 기술을 일상에 녹여내기
나무를 이용한 건물과 공간을 지키고 만들기	나무의 문화를 이어가는 건축물과 공간 계승하기 민간시설 등에서 나무 이용 촉진하기 시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나무를 이용하기 공원과 거리 등 공공공간에서 나무를 활용하기
숲과 마을의 선순환 구조 만들기	도시와 생활을 지탱하는 숲을 정비하기 숲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숲을 순환적으로 간접하기
나무 문화를 책임지는 주체가 연결되고 함께 추진하기	나무를 둘러싼 관계자들 간 협력 추진하기 산·학·관이 협력하여 나무 문화 진흥에 힘쓰기 폭넓게 관련 지자체와 연계하여 나무문화 확산하기

가나자와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다음과 같은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 시책별 세부 활동 내용은 가나자와시 도시계획과 웹사이트 참고 요망



가나자와시 나무의 문화도시 창출 모델 사업 보조금 및 연선 수목 문화도시
가시화 사업 보조금 지원 안내

출처: 金沢市都市計画課(2022)

①나무의 문화도시 미래상을 그리기 위해 CG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 ②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로고 제작, ③나무의 문화도시를 확산하고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④나무와 숲을 체험하기 위한 목공 수업, ⑤나무를 생업으로 하기 위해 가나자와 임업대학에서 연수생 교육, ⑥나무를 활용한 제품, 공

예 기술을 통한 사업 지원, ⑦나무 문화 계승을 위해 건조물과 공간에 목재를 활용하는 사업(3층 이상 건축물에 보조금 지원, 실시설계비의 100만 엔 상액으로 3분의 2 보조, 시공 시 1,000만 엔 상액으로 5분의 4 보조), ⑧가나자와시 시설에 나무를 활용하는 사업(시청, 도서관 등), ⑨공원, 가로 시설물에 나무를 사용하는 사업(버스정류장 등), ⑩학생 공모전을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이 그것이다.

위의 사업 중 일부는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이미 추진된 사례도 있다. 가나자와 새 시청사 내장에 목재 사용, 4층 목조사무실 및 상업 건축 가상설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추진계획의 비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가나자와를 대변하는 세 가지 토대인 역사문화, 창조도시, 경관도시라는 토대에 나무의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고 실행하는 것이 사업계획의 주된 방향이라 하겠다.

시민사회와 함께 만드는 도시계획: 나무 문화도시를 만드는 가나자와 회의

본 추진계획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계획으로, 계획에서 제시한 시책이 2024년 4월 기준으로 실제 진행된 사업은 없다. 그러나 2020년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나무 문화도시를 만드는 가나자와 회의’ 활동 등 제도가 시행되기까지의 몇 가지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진계획의 자료 편에는 ‘나무 문화 활동 연표’와 ‘계획 수립 과정’ 그리고 <‘나무 문화도시 가나자와’의 계승과 창조를 위한 제언서>가 함께 붙어 있다. 이들 자료는 ‘나무 문화도시를 만드는 가나자와 회의’의 발자취에 관련된 것으로, 이 회의*는 다니구치 요시로·요시오 기념 가나자와 건축관(谷口吉郎·吉生記念金沢建築館) 관장인 미즈노 이치로(水野一

郎)를 좌장으로 하여, 유관 대학·경제동우회·연구 기관·마을만들기 관련 기관의 구성원이 회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부터 마을만들기와 나무의 관계 찾기, 가나자와에서의 ‘목질 도시’가 갖는 의의 확립, 독자적 조례의 구상, 공공건축물 중심의 건축물 정비 방향 마련, 시범지구 구상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나무 문화도시 가나자와’의 계승과 창조를 위한 제언서>를 2021년 2월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제언서는 추진계획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인들의 삶에 녹아 있는 오래된 목공예품, 일본의 기후에 의해 국토에 우거진 숲에서 나오

는 나무라는 재료, 일본 조문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목조건축 등 나무 문화를 현재의 도시문화로 계승할 필요성을 적고 있다. 아울러 목재라는 유기물이 현대도시 건설의 주재료로서 지속가능성 담보, 풍수해 예방, 자연적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구 친화적 가치에 기반하여 목재 신기술과 전통의 접목이라는 목질 도시의 기본 이념을 담고 있다。

* 2020년 발족한 준비위원회를 의미한다.

** 제언서에 담긴 나무 문화도시 가나자와의 실현을 위한 6대 축의 중심사업: ①‘나무 문화도시 가나자와’의 계승과 창조, ②공공시설에서의 적극적인 나무 활용, ③민간 시설에 대한 나무 활용 촉진, ④생활과 생업에서의 나무 활용, ⑤나무를 둘러싼 순환형 사회 구축, ⑥나무 문화도시를 뒷받침하는 가나자와형 추진체계 구축

「木質都市」の創出に向けて

1. まちづくりと「木」を考える

(1) 「木」の文化の衰退

国土の約7割を森林が占める我が国では、古来より「木」の文化が息づいており、風土に根ざした生活や生業の営みを通して自然と人間の共生が図られてきた。

しかしながら明治以降、特に戦後においては不燃化が都市建設の主要な目的となり、その結果、一定の性能向上は図られたが木造建築は否定される傾向にある。このことが、現在の林業衰退の要因となっているとともに、まちの中に無機質な要素が増加し、日本人の安らぎや詩りにつながる「木」の文化の衰退を感じざるを得ない状況にある。

(2) 「木」にこだわるまちづくり

日本建築の基本は木造であり、ここを舞台に様々な伝統や文化が紡がれてきた。このことから、日本人のDNAに「木」は深く刻まれており、「木」にこだわり、「木」に敬意を払ったまちづくりは国民性として受け入れやすく、まちづくりの目的である「住民の心豊かな生活を支える空間の創出」を実現する上でも有効な手段である。

(3) なぜ今、取り組むのか

近年の木質建材の進化は目覚ましく、木造建築の可能性が広がり、全国でこれら新木質建材を用いた建築物が登場し、高層建築を目指す動きも始まっている。今後の更なる技術開発により、これらの取り組みは加速していくことが予想される。

加えて、人や自然に優しい環境への市民意識も大きく高まっていることから、新たなまちづくりに踏み出す土台は形成されつつあり、今こそ「木」にこだわるまちづくりを都市環境として面的に展開していく時期にきており、これは日本らしいSDGsの取り組みともなり得るものである。

2. 金沢が「木質都市」に取り組む意義

「木」にこだわるまちづくりには、防火性・耐震性などの課題もあり、これらの課題を乗り越えて面的に取り組みを進めるには、都市と市民がより強い「木」のDNAを有していることが不可欠であろう。

本市は、市域の約6割を森林が占めており、また非戦災都市であることから、金澤町家など「木」によるたくさんの歴史的資産を有している。加えて、そこを生活の場としてきた市民には木を用いた伝統工芸なども息づいていることから、「木」はより身近な存在であり、この挑戦的な取り組みを都市部で成功させられる数少ない都市のひとつである。

この金沢における取り組みが成果を上げ、諸処の課題解決が前進することは、金沢のステップアップはもちろんのこと、我が国の「木」にこだわるまちづくりの未来を拓き、「木」の文化の再評価にもつながるものであると考える。



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東山ひがし)



金澤町家の情報発信・空間体験
機能である金澤町家情報館



CLTを用いた金澤駅兼六園口
のシティーゲート（駁門）



木質化に挑戦した民間ビル
(金澤市庁舎1丁目地内)

‘나무 문화도시를 계승·창출하는 가나자와 회의’의 회의자료

출처: 金沢市都市計画課、木の文化都市を継承・創出する金沢会議(웹사이트 자료)

가나자와시는 UN이 2015년에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구현을 위한 시 차원의 전략으로 나무 문화도시 제언을 채택하였다. 2022년 제정된 나무문화도시조례 제17조에는 ‘나무 문화도시를 계승·창출하는 가나자와 회의’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제18조에는 앞의 회의가 “나무 문화도시의 계승과 창출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 가나자와의 나무 문화도시 정책은 출범 준비부터 시민사회와 시정부가 함께 정책을 만들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 ‘나무 문화도시를 만드는 가나자와 회의’는 ‘나무 문화도시를 계승·창출하는 가나자와 회의’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목공예·임업 분야와 건축사협회 위원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에 소개한 가나자와 회의의 첫 좌장이었던 미즈노 이치로는 가나자와 출신 건축가 다니구치 요시로를 기념하는 박물관의 관장이다. 다니구치 요시로는 일본의 ‘영빈관 아카사카 별궁’을 설계한 건축가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다니구치 요시로는 개인의 건축 작업과 별개로, 서두에 소개한 가나자와 시 전통환경 보존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언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다니구치 요시로는 역사적 건조물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여 지식인들과 함께 ‘가나자와 보존과 도시 재개발 진단’을 실시하고,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조성을 위한 방침을 가나자와시에 제언하였다. 미즈노 이치로 관장 역시 1970년대부터 가나자와의 전통공예 중심의 마을만들기를 제창한 인물이다. 공교롭게도 나무 문화도시 정책의 촉발이 과거와 현재를 이으려 노력한 다니구치 요시로를 기념하는 건축관의 대표가 맡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가나자와시는 지역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역사문화 관리체계가 자리 잡은 지역이다. 이 점이 우리가 지역의 시민사회와 산업, 역사

와 문화를 도시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아우르는 이번 추진계획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나가며: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에 담긴 나무의 문화도시·가나자와 창출모델 사업

본 추진계획은 2008년부터 일본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문화청·농림수산성 등 모두 3개 중앙부처와 협급·시급 지자체 공동 정책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 역사적 풍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地域における歴史的風致の維持及び向上に関する法律)’과 이의 시행을 위한 지자체별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과제를 같이하고 있다.

가나자와는 일본 안에서 천년 고도인 교토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중세·근세·근대를 거치며 도시에 남겨진 문화유산의 높은 역사적·문화유산적 가치를 잘 보존하고 활용·관리하는 대표적 도시로 알려져 있다. 가나자와시는 일본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2009년 1월에 일본 최초의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을 수립한 도시이다.* 10년마다 갱신하는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의 계획 기간에 따라 가나자와시도 2018년에 제2기 가나자와시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을 수립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계획을 인정받았다. 제2기 계획은 2023년 3월 변경 인증을 거치며, 신설 사업으로 ‘나무의 문화도시·가나자와 창출모델 사업’이 추가되었다. 이 과정에서 창출모델 사업은 국토교통성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

창출모델 사업은 앞서 소개한 3층 이상 목조건축물에 실시설계비와 목질화 시공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추진계획에서 나무 문화도시 구

* 일본에는 현재 95개 지자체가 역사적 풍치 유지향상계획을 수립하였다.

역 설정 시 창출모델 사업을 시행하는 오와리초(尾張町)는 추진 중점지역으로 설정되었다. 오와리초는 에도시대 초기부터 형성된 전통적 상업가로이다. 전통적인 중층의 목조건축이 상업가로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많이 멸실되어 목조건축을 찾기 힘든 지역으로 변하였다. 가나자와시는 제1기 역사적 풍치유지향상계획에서 오와리초 일원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강화하는 경관관리를 실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소통하여 민·관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에 이르렀다. 제2기 계획에서는 오와리초 일대의 새로운 목조건축을 통해 역사적 경관을 만드는 실험이 추진될 예정이다.

가나자와시의 추진계획은 나무의 문화도시를 가꾸는 도시계획이자 도시경관을 관리하는 경관계획이며, 동시에 새로운 도심 활력 거점을 조성하는 재생사업이고 역사적 풍치를 향상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문화유산 정책이다. 역사적 경관을 만드는 일은 문화재나 문화유산만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다. 이를 잘 보여주듯이 가나자와시는 시민의 생업과 생활, 건축과 도시계획과 함께하는 역사도시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이런 도전이 가능한 이유는 자주조례를 입법하고 운영하는 지역 시민사회 문화와 더불어, 문화청·국토교통성이 협업할 수 있는 법과 행정, 예산 운용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7 金沢市 都市計画課. (2024). 木の文化都市金沢の継承と創出に向けて“木”を取り入れたまちづくり(면담 제공 자료).
- 8 金沢市 歴史都市推進課. (2023). 金沢市歴史的風致維持向上計画平成30年3月26日認定・中間評価(平成30年度～令和4年度).
- 9 国土交通省. (2006). 金沢市の都市景観施策(웹사이트 자료).
- 10 西村幸夫. (2016). 金沢の歴史文化保全施策. 建築雑誌 JABS, 131(1683).
- 11 水野一郎. (2018). 犀川、兼六園は造形の図書館. 北國文華, 第78号(2018冬), 特集: 近代建築の巨匠 谷口吉郎の金沢.